

근로여건과 여가활용이 생활만족에 미치는 영향 -임금근로자를 중심으로-

허 증욱**

요 약

본 연구는 임금근로자를 대상으로 근로여건 만족도와 여가활용 만족도가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였다. 연구 결과, 다음과 같은 사실을 확인하였다.

첫째, 근로여건은 생활만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인간의 삶의 축을 노동과 여가로 볼 때 합리적 결과로 볼 수 있다. 둘째, 여가활용은 생활만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행복을 추구하는 개인이 생활만족에서 여가활용이 중요하다는 점을 의미한다. 셋째, 근로여건과 여가활용이 생활만족에 미치는 영향에서 인구통계적 특성으로 연령, 교육, 배우자, 가구소득, 거주지 등이 생활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결과는 근로여건과 여가활용은 생활만족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그리고 개인의 연령은 생활만족에 부의 방향으로 영향을 미치므로 연령 증가에 따른 생활만족도를 제고하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이 연구의 결과는 지속적인 교육으로서 평생교육, 결혼 장려, 정책적 접근을 통한 소비만족 제고, 거주지의 쾌적성 확보 등이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변수간의 관계를 정기적이고 지속적인 관찰을 통하여 인간의 권리로서 행복추구권을 보장하는 노력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주제어: 근로여건, 생활만족, 노동, 여가, 행복추구권

* 이 연구는 2016년도 강원대학교 대학회계 학술연구조성비로 연구되었음(관리번호-620160082).

** 강원대학교 관광학과 교수. E-mail: hcuk@kangwon.ac.kr

I. 서론

인간은 삶의 과정에서 노동과 여가활동을 통하여 자신의 삶을 구축하고 만족함으로써 행복을 추구한다. 삶의 궤적에서 노동활동과 여가활동은 인간의 존재조건과 이유를 설명하는 중요한 영역이다. 이 두 가지 모두는 인간이 자신의 삶을 충족시켜 행복한 삶을 영위하고자 하는 기본권에 해당한다. 이러한 인간의 기본적인 가치관과 생체리듬은 신체적인 동시에 정신적 특성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 그래서 유사한 수준의 스트레스에 대하여 상이한 반응이 나타나기도 한다(Coleman & Iso-Ahola, 1993; 고동우, 2007; Glover & Parry, 2008; Qian, Yarnal & Almeida, 2014). 인간은 삶의 과정에서 다양한 과업 또는 실존적 상황을 조우하게 된다. 이러한 양자택일 또는 판단은 삶의 과정을 통하여 자신에 영향을 미치고 타인에게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 삶의 영역 속에서 가장 큰 영역을 차지하는 노동활동과 여가활동은 보편적 행복관의 관점에서 볼 때 생활에서 만족하는 수준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

인간의 노동활동이나 여가활동과 생활만족과 관련된 연구에서는 이들 변수간의 관계를 연구하였다. 이는 인간의 삶의 가장 큰 영역이 노동과 여가로 대별할 수 있기 때문이다. 노동 또는 여가활동이 생활만족에 미친 영향에 대한 연구는 고용의 안전성, 여가활동과 생활만족(유정원·송인한, 2016; 허중옥, 2017; Choi & Choi, 2017; Lapa, 2013), 생활만족 또는 삶의 질 결정요인(김미령, 2011; 김유선, 2011; 이미경·최영순·남은숙, 2017; 이현송, 2000; 조택희·배민기, 2017), 노동과 생활만족(강영희, 2016; 조현진·박재국·박량은, 2015; Demirel, 2014; Iverson & Maguire, 2000) 등이 수행되었다. 이들 연구는 연구대상에 대하여 노동이나 근로 또는 여가를 원인변수로, 생활만족 또는 삶의 질을 결과변수로 설정하여 연구를 수행하였다. 원인변수로 생산노동으로서의 근로와 내재적 보상 활동으로서의 여가로 설정하여 생활만족과의 관계를 살펴본 연구는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다.

이 연구는 인간의 삶의 양대 축인 생산 노동으로서 근로활동, 여가활동이 생활만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이는 기존연구에서 전공별로 관심변수가 상이한 측면에서 발생하는 연구영역별 제약점을 탈피하여 통합적 접근을 시도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임금근로자를 대상으로 인간생활의 양대 축인 근로활동, 여가활동이 생활만족에 미치는 영향 관계를 살펴보았다.

II. 이론적 배경

1. 근로여건과 여가활동

1) 근로여건

근로여건은 인간이 생존과 가치 있는 삶을 영위하기 위하여 행하는 생산적 노동활동의 환경을 지칭한다. 다시 말해서 근로여건은 생산활동으로서 노동을 의미한다. 그동안 근로여건은 직무라는 제한된 용어로 생산성을 높이고 조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다수의 연구를 통하여 연구되었다. 이와 관련된 연구들은 주로 근로여건으로서 직무환경과 소진, 이직 등에 관한 연구들이 수행되어 왔다.

이 연구에서 보다 포괄적인 개념으로서 근로여건을 다루고자 하는 것은 근로활동과 관련된 환경변수가 매우 포괄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대한민국 정부의 조직인 통계청(Statistics Korea)에서는 삶의 질과 관련된 국민의 관심사와 주관적인 의식에 관한 사항을 파악하여 국민의 생활수준을 측정하는 절차로 「사회조사」를 실시하고 있다(통계청, 2015). 이 사회조사에서 임금근로자를 대상으로 근로 여건 만족도 즉 일자리 만족도를 조사하였다. 이를 구체적으로 기술하면 <표 1>과 같다.

<표 1> 근로여건 만족도

구분	매우 만족	약간 만족	보통	약간 불만족	매우 불만족	모르겠다	해당 없음
1. 하는 일							
2. 인사관리(승진, 배치, 이동)							
3. 임금(일에 비해)							
4. 복리 후생							
5. 직장에서의 장래성							
6. 근무 환경(안전, 위생상태 등)							
7. 인간관계(상하, 동료 간)							
8. 근로시간							
9. 직장에서의 성희롱 방지 노력							
10. 직장 내 교육훈련의 기회							

자료: 통계청(2015). 사회조사표.

임금근로자에 대한 근로 여건 만족도는 위와 같이 세부 환경변수에 대하여 질문을 통하여 근로여건을 주지시킬 필요성이 있다. 이에 후속하여 근로 여건 또는 일자리에 대한 만족도를 질문할 때 수렴할 수 있는 만족도를 확인할 수 있다.

2) 여가활동

여가에 대한 개념을 정의하는데 통일된 합의는 존재하지 않는다. 여가는 객관적 관점에서 자유재량 시간 또는 이 시간에 참여하는 활동으로 정의된다. 여가는 주관적 관점에서 자유재량 시간에 갖는 경험으로서 마음의 상태로 정의되기도 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여가는 외현적 조건(시간, 활동)과 심리적 조건(마음 상태)을 포함한 포괄성을 지니고 있다(고동우, 2007). 이를 바탕으로 여가 개념을 정의하면 <표 2>와 같다.

<표 2> 여가 개념의 정의

구분	정의
여가	비교적 자유로운 상태에서 내재적 보상을 얻기 위해 스스로 선택에 의해 결정하는 모든 경험
여가활동	그러한 여가 경험을 유발하는 일련의 행위로서 시작과 끝을 가진 활동 단위(예: 수영, 등산, 게임 등)
여가시간	여가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거나 실제 이루어지는 시간

자료: 고동우(2007). 여가학의 이해. p.66.

여가는 ‘현재 대한민국의 법률에 의하여 보다 구체적으로 명시되고 있다. 「국민여가활성화기본법(FRAMEWORK ACT ON THE PROMOTION OF LEISURE OF CITIZENS)」이 2015년 제정되어 시행중에 있다. 이 법에서는 여가란 “자유 시간 동안 행하는 강제되지 아니한 활동”을 말하며 다음 각호의 활동을 포함한다’고 명시하고 있다(법제처, 2018: 국민여가활성화기본법).

국민여가활성화기본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여가활동의 유형은 <표 3>의 내용과 같다. 즉 여가활동은 문화예술, 콘텐츠, 문화콘텐츠, 디지털콘텐츠, 디지털문화콘텐츠, 멀티미디어콘텐츠, 공공문화콘텐츠, 에듀테인먼트, 국민관광, 체육, 생활체육 등이다.

<표 3> 여가활동의 유형

구분	관련 법률
문화예술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 제1항 제1호
콘텐츠, 문화콘텐츠, 디지털콘텐츠, 디지털문화콘텐츠, 멀티미디어콘텐츠, 공공문화콘텐츠, 에듀테인먼트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조
국민관광	「관광기본법」 제13조
체육, 생활체육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 제1호 및 제3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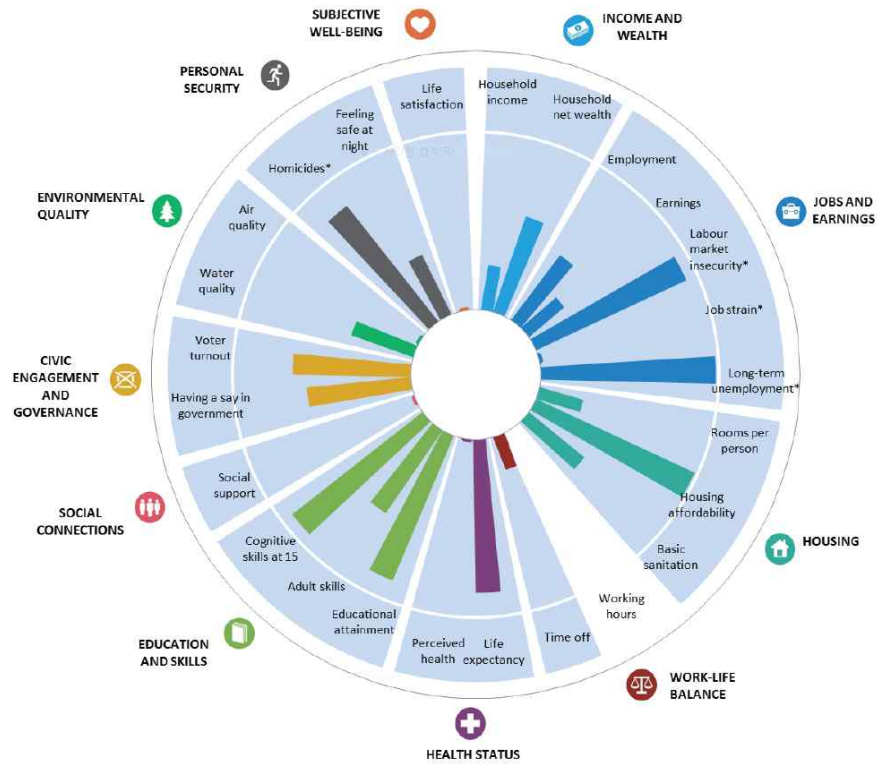
자료: 법제처(2018). 국민여가활성화기본법. 제3조.

2. 생활만족

사람들은 통상적으로 생활만족을 개인이 향유할 수 있는 웰빙, 행복감 또는 삶의 질이라고 생각한다(Shichman & Cooper, 1984; Edginton, DeGraaf, Dieser & Edginton, 2006에서 재인용). 웰빙 또는 생활만족의 일반적 의미는 삶의 특정 영역에 걸쳐서 경험하는 만족감과 불만족감의 혼합물이다(Campbell, Converse, & Rodgers, 1976; Rice, Near & Hunt, 1979; Shichman & Cooper, 1984에서 재인용). 선행 연구에 대한 논평은 웰빙감과 관련된 핵심적인 인구통계적 변수들 가운데 일부로 연령, 교육, 수입, 사회적 상호작용 및 참여, 결혼상태, 그리고 고용상태를 보여주고 있다(Shichman & Cooper, 1984).

생활만족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는 객관성을 포함한 수치로 표기되지만 그 내면은 매우 주관적 판단이 포함된 의미로 구성되어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여러 영역에서 생활만족을 계량화하여 ‘더 나은 삶의 지수(Better Life Index)’를 보고한다. 감정을 측정하는 것은 매우 주관적 일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 간의 삶의 질을 비교할 때 보다 객관적인 데이터를 보완하는 데 유용하다. 주관적인 데이터는 개인의 건강, 교육, 수입, 개인 성취 및 사회적 조건에 대한 개인 평가를 제공 할 수 있다. 설문 조사는 특히 생활만족과 행복을 측정하는 데 사용된다. 생활만족은 사람들이 현재의 감정보다 삶 전체를 평가하는 방법을 측정한다. 생활의 전반적인 만족도를 0에서 10점으로 평가할 것을 요청 받았을 때, OECD의 평균 사람들은 6.5점을 받았다. 그러나 생활만족은 OECD에서 균등하게 분배되지는 않는다. 일부 국가(그리스, 헝가리, 포르투갈, 터키)의 평균 생활만족은 5.5점 이하로 비교적 낮다. 덴마크, 핀란드, 아이슬란드, 노르웨이, 스위스에서는 점수가 7.5점에 도달했다. 대한민국의 생활만족도는 3.8점에 해당한다(OECD, 2018).

대한민국의 생활만족 수준은 과거 10년간 소규모 수준에서 증가했지만 OECD 평균 아래 수준에 위치해 있다(OECD, 2017). 이러한 점은 대한민국의 국민인 지각하는 생활만족 수준이 낮은 수준에 위치해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향후 이를 향상하려는 노력을 과제로 안고 있는 것이다.



<그림 1> 현재 대한민국의 웰빙의 평균 수준: 상대적 강점과 약점

자료: OECD(2017). How's Life? 2017: Measuring Well-being. p.262.

3. 선행연구의 논의

노동과 여가는 생활만족에 기여하는 경로에서 서로 연계되었을까? 이에 대하여 초기 일부 연구에서는 근로와 여가, 생활만족간의 관계를 부정하는 결과를 보고하였다 (Bergermaier, Borg, & Champoux, 1984; Near, 1984). 그러나 이후 다수의 연구들은 노동 즉 근로와 생활만족, 여가와 생활만족이 각각 영향관계에 있다는 것을 지지하고 있다.

Bergermaier, Borg, & Champoux(1984)는 근로, 여가 및 생활만족에 관한 이론들을 검증하였다. 이들의 연구는 근로와 여가, 생활만족간의 연계 관점에서 전이이론 (spillover theory)과 비관계 모형(no-relationship model)을 지지하고 있다. 이 연

구자들은 비록 근로와 여가가 서로 전이가 되고 이것이 생활만족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지만, 근로와 여가는 거의 관계가 없다고 주장한다(Bergermaier, Borg & Champoux, 1984; Edginton et al., 2006에서 재인용). Near(1984)는 인과모형 검증을 통하여 직무만족과 생활만족간의 관계를 연구하였다. 연구자는 직무만족과 생활만족간의 관계에 대한 이론과 연구 논평들은 일방향 인과관계 흐름(직무만족은 생활만족을 야기하나 생활만족은 직무만족을 야기하지 않는다)을 예언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실증분석 결과 이러한 예언은 지지되지 못하였다고 보고하였다. 즉 다른 변수들의 효과를 통제하였을 때 직무만족은 생활만족을 예언하지 못하였다고 보고하였다. 그러나 비록 다수의 연구자들이 다차원적이고 극도의 복합체로서 생활을 그러한 측면을 보고 있지만, 근로, 여가 및 생활만족의 관계에 관하여 논쟁이 여전히 존재한다(Kelly & Godbey, 1992; Edginton et al., 2006에서 재인용). 이러한 선행연구의 논쟁은 다수의 연구를 통하여 근로, 여가 및 생활만족간의 관계는 연관성을 지지하는 방향으로 쟁점을 정리하게 된다.

먼저, 근로와 생활만족간의 관계를 연구한 선행연구로서 Coad & Binder(2014)는 근로와 생활만족 및 그 결정요인간의 인과관계를 연구하였다. 그 결과 직무자율성은 웰빙을 결정하는데 중요한 인과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에서 직무자율성은 생활 및 직무만족, 수입, 근로시간 등에 긍정적 효과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Unanue, Gómez, Cortez, Oyanedel & Mendiburo-Seguel(2017)은 직무만족과 생활만족간의 연계성을 재탐색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3개의 연구를 수행하였으며 3개 연구 모두 직무만족과 생활만족간에 긍정적 연계성을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높은 수준의 직무만족은 보다 높은 생활만족을 예측하였다. Iverson & Maguire(2000)는 원격 광산촌을 대상으로 직무와 생활만족간의 관계를 연구하였다. 이 연구에서 가족고립과 관계지지에 관한 지역사회 변수들은 생활만족에 가장 큰 효과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무만족은 그 다음으로 가장 중요한 요소로 확인되었다. Demirel(2014)은 교사를 대상으로 직무와 생활만족간의 관계를 탐색하였다. 그 결과 생활만족과 직무만족간의 관계는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여주었다고 보고하였다. 이와 같은 선행연구 결과를 통하여 볼 때 근로와 생활만족간은 연관성을 갖는다고 볼 수 있다.

여가와 생활만족간의 관계를 연구한 선행연구로서 Rodríguez, Látková & Sun(2008)은 여가와 생활만족간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그 결과 활동이론과 욕구이론 측면에서 양자의 이론적 관점은 지지되었고, 보다 강한 관계가 참여한 활동보다는 만족한 욕구간의 관계에서 확인되었다. Lapa(2013)는 공원 레크레이션 스포츠활동 참가자를 대상으로 생활만족과 여가만족간의 관계를 연구하였다. 생활만족과 여가만족

및 여가에서 지각된 자유감간의 관계는 정적 선형관계를 보였으며, 연령과 수입에 따른 여가만족과 지각된 자유감간의 유의한 차이가 발견되었다고 보고하였다. Nawijin & Veenhoven(2011)은 휴일여행자를 대상으로 여가활동이 생활만족에 미치는 효과를 연구하였다. 그 결과 휴일여행이 행복감을 증진시킨다고 보고하였다. Choi & Choi(2017)은 한국의 농촌 저소득층 노인을 대상으로 여가역량과 여가활동 수준이 여가만족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였다. 이 연구에서 여가역량은 연령, 종교, 주관적 건강상태, 건강상태별 여가활동 수준, 여가활동 유형 등에 의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종교와 주관적 건강상태에 따른 생활만족에서 차이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Chen(2016)은 여가 참여, 직무 스트레스와 생활만족간의 관계에 대하여 연구하였다. 그 결과 여가참여는 직무 스트레스를 부의 방향으로 예측하였다. 그리고 직무 스트레스는 생활만족을 부의 방향으로 설명하였다. 이러한 점은 여가참여는 직무 스트레스를 완화시키며, 직무스트레스가 낮을수록 생활만족이 높게 나타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를 통하여 볼 때 여가활동과 생활만족간의 관계는 정의 방향으로 유의한 관계를 형성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여가와 생활만족에 관한 다수의 연구결과를 지지하는 결과이며 이로써 여가활동은 생활만족에 정의 방향으로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

Ⅲ. 연구설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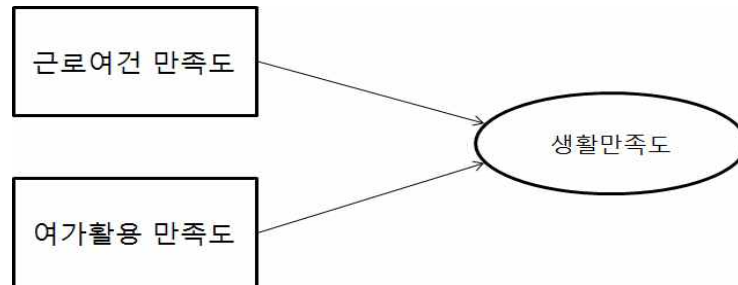
1. 연구모형

이 연구는 개인이 추구하는 행복을 확인할 수 있도록 근로여건 만족도와 여가 만족도가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하여 수행되었다. 지금까지 수행된 연구 결과에 따르면 근로여건은 생활만족과 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Iverson & Maguire, 2000; Coad & Binder, 2014; Demirel, 2014; Unanue et al, 2017). 일부 연구에서 근로여건 또는 직무와 생활만족간의 관계에서 인과관계가 확인되지 않는다(Bergermaier, Borg & Champoux, 1984; Near, 1984)고 주장하고 있으나 대다수의 연구결과에서 근로여건과 생활만족의 관계는 인과관계로 보는 것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그리고 개인이 참여하는 여가활동에 대한 개인적 태도로서 여가만족은 생활만족과

매우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 이것은 개인이 여가활동에 참여하는 것은 보다 직접적으로 행복을 추구하는 행동이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하여 수행된 선행연구에서 여가만족과 생활만족의 관계는 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Rodríguez, Látková & Sun, 2008; Nawijin & Veenhoven, 2011; Lapa, 2013; Chen, 2016; Choi & Choi, 2017).

이 연구의 모형은 선행연구 결과에 근거하여 <그림 2>와 같이 설정하였다. 이 모형은 근로여건 만족도와 생활만족도, 여가만족도와 생활만족도의 인과관계를 기반으로 설정되었다.



<그림 2> 연구모형

이와 같은 연구모형을 구체화한 연구가설은 다음과 같다.

가설 1: 근로여건 만족도는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2: 여가활용 만족도는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3: 근로여건 만족도와 여가활용 만족도는 응답자의 인구통계적 특성과 함께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2. 분석자료

이 연구에서 연구모형에 따른 연구가설을 검증하기 위하여 대한민국의 통계청에서 조사한 자료를 취득하여 변수를 설정하였다. 이 자료는 2015년 사회조사(2015.5.14~5.29)로 확률표본추출 방식으로 대규모 표본을 추출한 자료이다. 이 자료에는 다수의 정보가 포함되어 있어 이 연구에서는 필요한 변수를 제한적으로 선정하였다. 이 자료에서 이용한 임금근로자는 임금봉급생활자에 국한한 것이다. 이 자료에서 고용자, 자영자, 무급가족종사자는 제외되었다.

통계청에서 조사한 근로여건 만족도, 여가활용 만족도, 생활만족도, 여가활용 참여도는 각각 세부적인 측정항목을 통하여 측정되었다. 먼저 근로여건 만족도 측정은 <표 1>에 대한 근로여건 만족도에 대한 개별 항목을 먼저 질문한 후 “귀하는 모든 것을 고려할 때, 현재의 일자리에 어느 정도 만족하십니까? ① 매우 만족, ② 약간만족, ③ 보통, ④ 약간 불만족, ⑤ 매우 불만족”으로 설계되었다. 여가활용 만족도는 신문, 독서, 문화 예술 및 스포츠 관람, 레저시설 이용 횟수, 관광여행 횟수, 해외 여행 경험 및 횟수, 주말이나 휴일의 여가 활동 등에 대한 질문을 먼저 실시한 후 “귀하는 평소 여가 생활에 만족하십니까? ① 매우 만족, ② 약간 만족, ③ 보통, ④ 약간 불만족, ⑤ 매우 불만족”으로 설계되었다. 생활만족도 측정은 “귀하의 생활을 전반적으로 고려할 때 현재 삶에 어느 정도 만족하십니까? ① 매우 만족, ② 약간 만족, ③ 보통, ④ 약간 불만족, ⑤ 매우 불만족”으로 설계되었다. 인구통계적 특성은 생활만족과 관련된 변수로 보고된 연령, 교육, 수입, 배우자, 거주지 등을 모형에 포함하였다(Shichman & Cooper, 1984).

이 연구에서 이용한 표본의 특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빈도분석과 구성비 산출을 실행하였다. 그리고 근로여건 만족도와 생활만족도, 여가활용 만족도와 생활만족도, 여가활동 참여도와 여가활용 만족도 등의 인과관계를 확인하기 위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이 과정에서 성별, 배우자 유무, 거주지 등의 인구통계적 변수는 더미변수로 변환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IV. 분석결과

1. 표본의 인구통계적 특성

이 연구에서 수집된 유효표본은 총 14,899명으로 인구통계적 특성은 <표 4>와 같다. 이 연구의 유효표본은 근로상에서 임금 봉급생활자를 대상으로 표본을 선정하였다. 응답자의 성별 구성은 남성 57.3%, 여성 42.7%이다. 연령별 구성은 10대 1.8%, 20대 14.3%, 30대 24.1%, 40대 27.2%, 50대 20.9%, 60대 이상 11.7%이다. 교육 정도는 초졸 이하 7.0%, 중학교 8.1%, 고교 37.9%, 대졸 이상 47.0%이다. 혼인상태 구성비는 미혼 24.8%, 배우자 있음 65.7%, 사별 4.0%, 이혼 5.5%이다. 가구소득 구성비는 100만원 미만대 6.1%, 100만원대 18.9%, 200만원대 21.8%, 300만원대 19.1%, 400만원대 14.1%, 500만원대 8.0%, 600만원 이상 12.1%이다.

<표 4> 응답자의 인구통계적 특성

구분		빈도	구성비	구분		빈도	구성비
성별	남성	8,541	57.3	혼인상태	미혼	3,689	24.8
	여성	6,358	42.7		배우자 있음	9,785	65.7
연령	10대	267	1.8		사별	603	4.0
	20대	2,131	14.3		이혼	822	5.5
	30대	3,594	24.1	가구소득	100만원 미만	909	6.1
	40대	4,054	27.2		100만원대	2,810	18.9
	50대	3,116	20.9		200만원대	3,244	21.8
	60대 이상	1,737	11.7		300만원대	2,840	19.1
교육정도	초졸 이하	1,046	7.0		400만원대	2,094	14.1
	중학교	1,201	8.1		500만원대	1,196	8.0
	고교	5,643	37.9	600만원 이상	1,806	12.1	
	대졸 이상	7,009	47.0	<i>n</i> =14,899			

이 연구 개념변수로 제시된 근로여건 만족도, 여가활용 만족도, 생활만족도의 응답 특성으로 평균값은 다음과 같다. 응답자는 근로여건 만족도 3.04, 여가활용 만족도 3.01, 생활만족도 3.24 등으로 각각 평균값을 보였다.

2. 가설 검증

이 연구의 관심은 세 개의 연구가설로 집약된다. 이 가설은 근로여건 만족도와 생활만족도, 여가활용 만족도와 생활만족도, 응답자의 인구통계적 특성과 생활만족도 등의 관계에서 인과관계가 존재하는가에 관한 것이다.

1) 근로여건 만족도와 생활만족도

가설 1 “근로여건 만족도는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를 검증하기 위하여 인과모형을 설정하였다. 임금근로자의 근로여건 만족도를 독립변수, 생활만족도를 종속변수로 설계한 인과모형은 회귀분석을 통하여 그 관계를 확인하였다. 근로여건 만족도와 생활만족도의 인과관계는 <표 5>와 같다.

<표 5> 근로여건 만족도와 생활만족도

종속 변수	독립 변수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t	공선성 통계량	
		B	표준 오차	베타		공차 한계	VIF
생 활 만족도	(상수)	1.633	.074		22.110		
	근로여건 만족도	.347	.011	.307	31.101***	.910	1.099
	성별	.025	.026	.010	.954	.740	1.351
	연령	-.005	.001	-.059	-5.319***	.722	1.385
	교육년수	.028	.003	.102	8.239***	.580	1.724
	배우자	.180	.025	.085	7.351***	.657	1.522
	가구소득	8.045E-08	.000	.158	13.517***	.648	1.542

$R^2=.224$ $R^2adj=.224$ $F=421.885$ $p=.001$

주: * $p<0.05$, ** $p<0.01$, *** $p<0.00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함.

임금근로자의 근로여건 만족도는 생활만족도에 정의 방향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것은 임금근로자가 지각하는 근로여건 만족도가 높을수록 생활만족도에 상승작용을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모형에서 동시에 투입된 변수로 연령, 교육년수, 배우자 유무, 가구소득은 정의 방향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성별은 이 모형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모형의 변수로서 연령은 부의 방향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연령이 증가할수록 부의 방향 즉 만족도가 낮아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은 현실적인 측면의 의미와 과제를 부여하고 있다.

2) 여가만족도와 생활만족도

가설 2 “여가활용 만족도는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를 검증하기 위하여 인과모형을 설정하였다. 임금근로자의 여가활용 만족도를 독립변수, 생활만족도를 종속변수로 설계한 인과모형은 회귀분석을 통하여 그 관계를 확인하였다. 근로여건 만족도와 생활만족도의 인과관계는 <표 6>과 같다.

<표 6> 여가활용 만족도와 생활만족도

종속 변수	독립 변수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t	공선성 통계량	
		B	표준 오차	베타		공차 한계	VIF
생 활 만족도	(상수)	1.563	.071		21.951		
	여가활용 만족도	.370	.010	.364	38.306***	.933	1.072
	성별	-.021	.025	-.009	-.814	.743	1.346
	연령	-.003	.001	-.044	-4.042***	.723	1.382
	교육년수	.025	.003	.093	7.741***	.580	1.725
	배우자	.189	.024	.090	7.919***	.657	1.522
	가구소득	8.576E-08	.000	.169	14.949***	.664	1.507

$R^2=.262$ $R^2_{adj}=.262$ $F=518.657$ $p=.001$

주: * $p<0.05$, ** $p<0.01$, *** $p<0.00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함.

임금근로자의 여가활용 만족도는 생활만족도에 정의 방향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것은 임금근로자가 여가활동에 참여하고 지각하는 여가활용 만족도가 높을수록 생활만족도에 상승작용을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모형에서 변수로 동시에 투입된 변수 가운데 연령, 교육년수, 배우자 유무, 가구소득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변수 가운데 성별은 이 모형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모형에서 변수의 영향 방향은 대부분 정의 방향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었으나 연령은 부의 방향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연령이 증가할수록 생활만족도에 부의 방향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임금노동자의 연령이 증가할수록 생활만족도는 낮게 나타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일반적인 여가활용 만족도와 생활만족도간의 인과관계가 통계적으로 유의하며 주요 인구통계적 특성이 모형에 포함될 때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3) 근로여건 만족도와 여가활용 만족도가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가설 3 “근로여건 만족도와 여가활용 만족도는 응답자의 인구통계적 특성과 함께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를 검증하기 하여 인과모형을 설정하였다. 임금근로자의 근로여건 만족도와 여가활용 만족도를 독립변수, 생활만족도를 종속변수로 설계한 인과모형은 회귀분석을 통하여 그 관계를 확인하였다. 근로여건 만족도와 여가활용 만족도가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관계는 <표 7>과 같다.

<표 7> 여가활용 만족도와 생활만족도

종속 변수	독립 변수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t	공선성 통계량	
		B	표준 오차	베타		공차 한계	VIF
생 활 만족도	(상수)	1.157	.071		16.240		
	근로여건 만족도	.240	.011	.212	21.482***	.823	1.215
	여가활용 만족도	.303	.010	.299	30.703***	.844	1.184
	연령	-.004	.001	-.055	-5.188***	.721	1.386
	교육년수	.021	.003	.079	6.739***	.578	1.729
	배우자	.203	.021	.096	9.594***	.794	1.259
	가구소득	6.475E-08	.000	.127	11.393***	.641	1.560
	거주지	.061	.025	.023	2.471**	.962	1.040

$R^2=.301$ $R^2adj=.300$ $F=536.895$ $p=.001$

주: * $p<0.05$, ** $p<0.01$, *** $p<0.00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함.

임금근로자가 근로와 여가에서 지각하는 근로여건 만족도와 여가활용 만족도는 생활만족도에 정의 방향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것은 임금근로자가 근로여건 만족도와 여가활용 만족도가 높을수록 생활만족도에 상승작용을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모형에서 변수로 동시에 투입된 변수 가운데 연령, 교육년수, 배우자 유무, 가구소득, 거주지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모형에서 변수의 영향 방향은 대부분 정의 방향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었으나 연령은 부의 방향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연령이 증가할수록 생활만족도에 부의 방향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연구모형에서 연령의 증가 특히 노령인구의 경우 근로 기회가 적고 소득이 만족스럽지 못하게 지각되어 생활만족도가 낮게 형성된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우리나라의 경우 노인은 산업사회를 일군 근로자였으나 현재는 존중감이 약화된 것도 이와 같이 생활만족도를 낮게 형성시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장년의 경우 자녀의 성장과 교육에 따른 가계지출이 높게 형성되고 자녀 돌봄에 따른 여가 기회도 상대적으로 낮은 상태 등이 영향을 줄 수 있다. 이 모형에서 인구통계적 변수 가운데 교육연수가 많을수록, 배우자가 있을 경우,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생활만족도가 높다는 의미를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임금근로자의 거주지 즉 읍면지역에 거주할수록 생활만족도가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는 읍이나 면지역에 거주하는 임금근로자가 생활만족도에서 보다 높게 만족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V. 결 론

이 연구는 임금근로자를 대상으로 근로여건 만족도와 여가활용 만족도가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였다. 연구의 관심사항을 가설로 설정하여 검증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과를 확인하였다.

첫째, 근로여건 만족도는 생활만족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는 가설은 채택되었다. 인간의 생활에서 가장 큰 영역을 차지하고 있는 근로여건은 생활만족과 매우 밀접하다고 볼 수 있다. 둘째, 여가활용 만족도는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는 가설은 채택되었다. 여가활용은 인간의 생활에 크고 중요한 위치를 점하고 있는 영역이다. 셋째, 근로여건 만족도와 여가활용 만족도는 응답자의 인구통계적 특성과 함께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는 가설은 채택되었다. 이 모형에서 변수로 투입된 인구통계적 특성도 생활만족도에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에서 검증한 연구결과는 대한민국 사회에 몇 가지 시사점을 보여주고 있다. 먼저, 대부분의 삶이 임금근로자로 생활하며 이들이 지각하는 근로여건 만족도는 생활만족도에 동일 방향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은 근로여건을 형성하는 여러 가지 환경을 임금근로자에 친화적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 이와 관련된 환경은 하는 일, 인사관리, 임금, 복리 후생, 직장에서의 장래성, 안전 및 위생 등 근무환경, 인간관계, 근로시간, 직장에서의 성희롱 방지 노력, 직장 내 교육훈련의 기회 등을 포함한다.

둘째, 여가활용 만족도는 생활만족도에 동일 방향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은 임금근로자가 여가를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장려하고 환경을 구축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 생산을 위한 노동으로서 근로여건이 중요하듯이 이에 대한 휴식과 재충전 및 자기발전을 도모하는 여가활용은 개인의 행복을 추구하는데 필수적인 영역이다. OECD 회원국 가운데 대한민국은 생활만족도 점수가 최하위 수준에 점하고 있다는 점에서 여가활용 만족도를 높이는 것은 중요한 과제가 된다.

셋째, 근로여건 만족도와 여가활용 만족도가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관계에서 모형에 함께 투입된 인구통계적 특성도 여러 가지 과제를 시사하고 있다. 연령은 부의 방향 즉 반대방향으로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쳐 나이가 들수록 생활만족도가 부정적으로 나타나므로 이에 정책적 대응이 요구된다. 교육년수와 생활만족도는 동일 방향으로 영향을 주므로 지식, 경험, 기술을 향상할 수 있는 평생교육체계를 활용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배우자가 있는 경우 생활만족도와 같은 방향으로 만족도가 나타나므로 결혼을 장려하는 실천적 과정이 필요하다. 가구소득은 생활만족도를 향상시키므로 사

회복지적 측면에서 가구의 소비만족도를 제고할 수 있는 접근이 필요하다. 거주지는 도시에 비하여 농촌에 거주하는 임금근로자의 생활만족도가 보다 높게 나타나므로 주거지의 환경으로서 녹지, 지역사회, 안온함 등 쾌적성을 높일 수 있는 주거환경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

이 연구는 대부분의 인간이 생존과 행복을 위하여 행하는 근로와 여가활동이 생활만족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였다. 인간이 추구하는 행복감을 높이기 위하여 근로여건, 여가활동 이외 정책적으로 제공되는 환경으로 복지환경도 매우 중요하다. 향후 연구에서 생산노동으로서 근로, 자유활동으로서 여가를 주축으로 정부에서 제공되는 복지, 주거환경 등을 포함한 생활만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 강영희(2016). 고학력 취업여성의 일자리 만족과 생활만족의 결정요인 탐색. *젠더와 문화*, 9(1), 101-129.
- 고동우(2007). *여가학의 이해*. 세림출판.
- 김미령(2011). 베이비붐세대, X세대, 준고령세대 여성의 삶의 질 구성요소 비교 연구. *노인복지연구*, 51, 7-34.
- 김유선(2011). 주 40시간 근무제가 노동자 여가생활에 미친 영향. *산업노동연구*, 17(1), 37-70.
- 법제처(2018). *국민여가활성화기본법*.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
- 유정원·송인한(2016). 임금근로자의 고용질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 인지된 경제수준의 매개효과분석. *정신보건과 사회사업*, 44(1), 106-133.
- 이미경·최영순·남은숙(2017). 농어촌 거주 노인의 주관적 생활만족도 결정요인. *한국도시연구*, 29(2), 73-90.
- 이주연·김혜숙·신희천·최진아(2011). 외국인 노동자의 노동·여가생활 변화 인식과 삶의 만족감에 대한 연구. *한국여가레크리에이션학회지*, 36(4), 83-97.
- 이현송(2000). 소득이 주관적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 *한국인구학*, 23(1), 91-117.
- 조택희·배민기(2017). 지역주민의 생활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요인 연구: 충청북도를 대상으로.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7(5), 591-601.
- 조현진·박재국·박량은(2015). 지체장애 근로자의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요인 탐색. *지체·중복·건강장애연구*, 58(2), 203-227.

- 통계청(2015). *2015년 사회조사표: 복지·사회참여·문화와 여가·소득과 소비·노동*.
- 허중욱(2017). 고용의 안전성과 여가만족도가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관광연구저널*, 31(9), 47-57.
- Bergermaier, R., Borg, I. & Champoux, J.(1984). Structural Relationships among Facets of Work, Nonwork, and General Well-Being. *Work and Occupations*, 11(2), 163-181. <https://doi.org/10.1177/0730888484011002003>.
- Campbell, A., Converse, P., & Rodgers, W.(1976). *The Quality of American Life*. New York: Russel Sage.
- Chen, W. (2016). Leisure Participation, Job Stress, and Life Satisfaction: Moderation Analysis of Two Models. *Social Behavior and Personality: An International Journal*, 44, 579-588. DOI: <https://doi.org/10.2224/sbp.2016.44.4.579>.
- Choi, J. & Choi, J. A.(2017). Influence of Leisure Competence and Level of Leisure Activity on Life Satisfaction in Low-income Older Adults in Rural South Korea. *Research in Gerontological Nursing*, 10(2), 67-75. <https://doi.org/10.3928/19404921-20170224-01>.
- Coad, A. & Binder, M.(2014). Causal Linkages between Work and Life Satisfaction and Their Determinants in a Structural VAR Approach. *Economics Letters*, 124(2), 263-268. <https://doi.org/10.1016/j.econlet.2014.05.021>.
- Coleman, D. & Iso-Ahola, S. E.(1993). Leisure and Health: the Role of Social Support and Self-determination. *Journal of Leisure Research*, 25(2), 111-128.
- Demirel, H.(2014). An Investigation of the Relationship between Job and Life Satisfaction among Teachers. *Procedia - Social and Behavioral Sciences*, 116, 4925-4931.
- Edginton, C. R., DeGraaf, D. G., Dieser, R. B. & Edginton, S. R.(2006). *Leisure and Life Satisfaction*. New York: McGraw-Hill.
- Glover, T. D. & Parry, D. C.(2008). Friendships Development Subsequent to a Stressful Life Event: The Interplay of Leisure, Social Capital, and Health. *Journal of Leisure Research*, 40(2), 208-230.
- Iverson, R. D. & Maguire, C.(2000). The Relationship between Job and Life Satisfaction: Evidence from a Remote Mining Community. *Human Relations*, 53(6), 807-839. <https://doi.org/10.1177/0018726700536003>.
- Kelly, J. R. & Godbey, G.(1992). *Sociology of Leisure*. State College. PA: Venture.
- Lapa, T. Y.(2013). Life Satisfaction, Leisure Satisfaction and Perceived Freedom of Park

- Recreation Participants. *Procedia - Social and Behavioral Sciences*. 93, 1985-1993. 10.1016/j.sbspro.2013.10.153.
- Nawijn, J & Veenhoven, R.(2011). The Effect of Leisure Activities on Life Satisfaction: The Importance of Holiday Trips. I. Brdar(ed.), *The Human Pursuit of Well-Being: A Cultural Approach*. Springer Science, pp 39-53. DOI 10.1007/978-94-007-1375-8_4.
- Near, J. P.(1984). Relationships between Job Satisfaction and Life Satisfaction: Test of a Causal Model. *Social Indicators Research*, 4, 351-367. <https://doi.org/10.1007/BF00351444>.
- OECD(2017). How's Life? 2017: *Measuring Well-being*. *OECD Better Life Initiative*. https://read.oecd-ilibrary.org/economics/how-s-life-2017_how_life-2017-en.
- OECD(2018). *OECD Better Life Index*. <http://www.oecdbetterlifeindex.org/topics/life-satisfaction/>.
- Qian, X. L., Yarnal, C. M. & Almeida, D. M.(2014). Does Leisure Time Moderate or Mediate the Effect of Daily Stress on Positive Affect? An Examination Using Eight-day Diary Data. *Journal of Leisure Research*, 46(1), 106-124.
- Rice, R. W., Near, J. P., & Hunt, R. G.(1979). Unique Variance in Job and Life Satisfaction Associated with Work-related and Extra-workplace Variables. *Human Relations*, 32(7), 605-623.
- Rodríguez, A., Látková, P. & Sun, Y.(2008). The Relationship between Leisure and Life Satisfaction: Application of Activity and Need Theory. *Social Indicators Research*, 86(1), 163-175.
- Shichman, S. & Cooper, E.(1984). Life satisfaction and Sex-role Concept. *Sex Roles*, 11(3-4), 227-240. <https://doi.org/10.1007/BF00287516>.
- Unanue, W., Gómez, M. E., Cortez, D., Oyanedel, J. C. & Mendiburo-Seguel, A.(2017). Revisiting the Link between Job Satisfaction and Life Satisfaction: The Role of Basic Psychological Needs. *Frontiers in psychology*, 8, 680. doi: 10.3389/fpsyg.2017.00680.

접수일(2018년 08월 13일)
 수정일(2018년 08월 19일)
 게재확정일(2018년 08월 23일)
 3인익명 심사필

The Relationship between Work Conditions and Leisure Utilization on Life Satisfaction: In the Case of Wage Workers

Heo, Chung-Uk*

Abstract

This study examined the effects of work conditions satisfaction and leisure satisfaction on life satisfaction of wage workers. As a result of the study, the following facts were confirmed.

First, work conditions have a significant effect on life satisfaction. These results can be seen as a reasonable result when the axis of human life is seen as labor and leisure. Second, leisure utilization has a significant effect on life satisfaction. This result implies that the leisure pursuit is important for the individual pursuing happiness. Third, age, education, spouse, household income, and residence were found to affect life satisfaction in terms of demographic characteristics in the effects of working conditions and leisure utilization on life satisfaction.

This study suggests that work conditions and leisure utilization have an impact on life satisfaction. And since the age of the individual affects the life satisfaction in the negative direction, it is necessary to create an environment that raises the life satisfaction according to the age increase. In addition, the results of this study suggest that lifelong education, encouraging marriage, enhancing consumer satisfaction through policy approach, and ensuring the amenity of the residence are necessary. Therefore, through regular and continuous observation of the relationship between these variables, efforts should be made to guarantee the right to pursue happiness as a human right.

Keywords: work condition, life satisfaction, work, leisure, the pursuit of happiness

* Professor, Dept. of Tourism Management, Kangwon National University, Korea.
E-mail: hcuk@kangwon.ac.kr